

보도시점 2024. 4. 3.(수) 11:00
4. 4.(목) 조간

배포

2024. 4. 3.(수) 09:00

농식품 해외 ‘안테나숍’, 케이-푸드(K-Food) 수출 영토 확대에 앞장서!

- 수출 3대 신시장(중남미, 중동, 인도) 포함 전 세계 25개국 28개소 안테나숍 운영 추진 -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올해 케이-푸드(K-Food) 100억불을 달성하고 중남미, 중동, 인도 등 신시장으로 수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25개국 28개소에서 한국 농식품 ‘안테나숍’을 운영할 계획이다.

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가 낮은 신규시장에 케이-푸드(K-Food)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하고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.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 전반을 취급하는 일반 안테나숍과 한국 신선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케이-프레쉬 존(K-Fresh Zone, KFZ)으로 구성되어 있다.

일반 안테나숍은 2013년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, 유럽, 중남미 등 한국 농식품 진출이 미미한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유통망을 개척해 오고 있다. 특히, 중남미 페루의 안테나숍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에 있어, 페루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케이-푸드(K-Food)를 홍보하고 있다. 이외에도 프랑스 대표 관광 도시 ‘니스’의 까르푸(Carrefour) 내 스텝인숍, 영국 축구의 성지 ‘리버풀’ 중앙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한국 농식품을 알리고 있다.

한편, 케이-프레쉬 존(K-Fresh Zone, KFZ)은 2017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, 베트남 등으로 한국 신선 농산물 전문 유통망을 확대해 오고 있다. 특히,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(UAE) 샤르자 지역에 케이-프레쉬 존(KFZ)을 최초로 개소하여 동남아 국가 위주로 집중되어 있던 신선 농산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.

올해는 「케이-푸드 플러스(K-Food⁺) 수출 혁신 전략('24.2)」에 따라 시장규모와 잠재력이 큰 3대 신시장(중동·중남미·인도)을 공략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테나숍 총 28개소(계획) 중 12개소(중남미 5, 중동 4, 인도 3)를 신시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.

- * 중남미 : 페루 쿠스코, 에콰도르 쿠엥카, 멕시코 께레타로,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, 아르헨티나 엘칼라파테
- ** 중동 :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, UAE 두바이·샤르자, 튀르키예 이스탄불
- *** 인도 : 남부 벵갈루루, 북동부 아쌈 구와나티, 북부 찬디가르

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“해외 안테나숍은 신규 수출시장의 유통망 개척부터 케이-푸드(K-Food) 홍보, 신규 바이어 발굴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”라며, “안테나숍 이외에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,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3대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해외 안테나숍 운영 사진

담당 부서	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이용직 (044-201-2171)
		담당자	사무관	김남주 (044-201-2174)





페루 마추픽추 안테나숍



영국 리버풀 안테나숍



프랑스 니스 안테나숍(외부)



프랑스 니스 안테나숍(내부)



UAE 샤르자 K-Fresh Zone



홍콩 K-Fresh Zone